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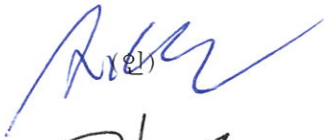
## 제309회 정기 이사회 의사록

건명	1. 제486호 2020사업연도 경영평가 결과 2. 제2021-8호 2021년 5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상정자	사장 김명중		
일시 및 장소	2021. 5 20.(목) 16:00 ~ 16:20, 18층 대회의실		
출석 인원	이사 9명	결석 인원	없음
참석자	유시춘 이사장, 김양은 이사, 김진 이사, 문종대 이사, 박강호 이사, 선동규 이사, 이영한 이사, 장옥님 이사, 정동섭 이사		
회의 결과	1. 제486호 : 공개, 원안 의결 2. 제2021-8호 : 공개, 청취 접수	기록자	간사

위 의결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날인함.

2021년 6월 17일

이사장 유 시 춘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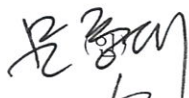
이 사 김 양 은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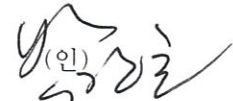
이 사 김 진

(인) 

이 사 문 종 대

(인) 

이 사 박 강 호

(인) 

이 사 선 동 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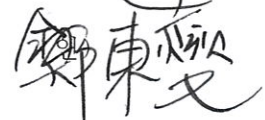
이 사 이 영 한

(인) 

이 사 장 옥 님

(인) 

이 사 정 동 섭

(인) 

제 309 회

# 이 사 회

- ◆ 일 시 : 2021년 5월 20일(목) 16시
- ◆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한국교육방송공사 본사 18층 대회의실

**한국교육방송공사**

# 회 순

I. 개회 .....	1
II. 인사 .....	2
III. 전차 의사록 확인 .....	4
IV. 상정안건 .....	5
< 의결안건 >	
제486호 : 2020사업연도 경영평가 결과 .....	6
< 보고안건 >	
제2021-8호 : 2021년 5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	28
V. 폐회 .....	46

(開會 : 16時 00分)

## I . 開 會

○ 議長 유시춘

김혜영 사무국장님, 성원보고 해 주십시오.

○ 理事會 事務局長 김혜영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아홉(9) 분 가운데 이영한 이사님을 제외한 여덟(8) 분이 참석하셔서 이사회 규정 제7조에 의거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였기에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이종풍 위원장, 김무성 사무처장, 김경민 사무국장 등 모두 3명입니다.

○ 議長 유시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제30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議事棒 三打 ))

## II. 人 事

### ○ 議長 유시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이 짙어가는 5월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 5월에 우리 현대사는 아픔과 상처가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그저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그동안 서로 갈등과 대립을 누적시켜 온 분들이 5·18 묘지,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 민주주의의 깊은 뜻을 다시 기리는 그 행사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반갑고 기뻐했습니다.

모쪼록 이런 어른들의 평화와 상생의 정신이 팬데믹을 맞아서 집에서 EBS를 보고 공부하고 있는 여러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져왔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지금 혐오범죄가 문제가 증가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때에 어른들이 모처럼 민주주의의 의미를 기리는 행사에서 한마음이 된 것을 보고 청소년들에게 참 귀감이 되는 모습이 라고 생각을 하고 모쪼록 이런 평화와 상생과 화해의 기운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전염병만 전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기운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안건 총 두 건입니다.

의결안건으로 「2020사업연도 EBS 경영평가 결과」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다섯 달 동안 수고해 주신 경영평가단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사회는 최종보고서를 앞두고 지난 6일에 경영평가단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어 바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외부의 시선으로 EBS의 현재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EBS의 미래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경영평가보고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의전적인, 또 1회에 그치는 지나가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내일의 비전을 준비하는 뜻 깊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이사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명중 사장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 ○ 社長 김명중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힘든 이때에 먼저 좋은 소식 하나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54회 휴스턴 국제TV영화 페스티벌에서 EBS의 총 7개 프로그램이 대상부터 동상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다큐프라임 인류세>, 그리고 <요리의 과학> 등 2개의 프로그램이 대상을 수상하였고, <모여라 덩동댕> <보니 하니>와 같은 어린이 프로그램도 은상과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북미 최대의 TV 페스티벌에서 다양한 EBS 프로그램들이 큰 상을 받은 것은 EBS 콘텐츠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품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제작진을 비롯한 EBS 구성원들에 대해 이사님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사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해 줄까 EBS는 그동안 코로나19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사회적 책무인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하는 EBS 후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교육공영방송 공공성 가치 확대와 과제를 주제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EBS에 새롭게 기대되는 사회적 책무 등을 확인하였고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5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사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유시춘

그 휴스턴 국제영화제는 굴지의 손꼽히는 의미 있는 영화제인데, EBS가 그렇게 많은 상을 타게 되어서 그동안 우리 임원들, 또 직접 제작하신 우리 실무진들에게 한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 Ⅲ. 前次 議事錄 確認

○ 議長 유시춘

그럼 전차 의사록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 개최된 제308회 정기이사회 의사록을 확인하고 접수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이메일로 송부해 드린 그 정리된 내용대로, 원안대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예.” 하는 理事들 있음 ]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제308회 이사회 의사록은 원안대로 접수합니다.

(( 議事棒 三打 ))

## IV. 上程案件

○ 議長 유시춘

다음은 회의 공개 여부 안내하겠습니다.

이사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오늘 제486호 의결안건과 제2021-8호 보고안건은 모두 공개리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한 理事 入室》

## 〈 議決案件 〉

### 【 第486號 : 2020事業年度 經營評價 結果 】

#### ○ 議長 유시춘

그럼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2020사업연도 경영평가 결과」 를 상정합니다.

#### (( 議事棒 三打 ))

경영평가단장님, 상정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理事 정동섭(經營評價團長)

그동안 이사장님 비롯해서 많은 이사님들이 경영평가 처음 시작부터 중간 단계, 결과까지 많은 신경을 써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주셨습니다.

우리 경영평가단은 일곱 차례 회의를 했지만 바로 전에 이사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큰 조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담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결과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의 경영성과는 EBS 창사 이래 가장 큰 성과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평가위원들이 하나 같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3천억이라는 매출 달성, 또 수익을 이룬 부분이라든가, 또 사장님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경영을 혁신하려는 노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 《김유열 副社長 入室》

물론 경영이라는 게 말 못 할 그런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또 중간에 노력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나하나 평가할 수 없고 결과를 가지고 말한다는 그런 한계도 있지만, 우리 경영평가 위원님들은 현업에 있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난관도 극복하려는 의지도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고서에는 일일이 쓰지 못했지만 행간에 그런 의미를 다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의 성과가 내일로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잘 했다는 칭찬 일변도보다는 또 다른 도전의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긴장감을 불어넣어줘야 된다는 그런 이사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평이나 내용의 긴장감, 칭찬은 앞에 있지만 긴장감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계속 이루어 나가려는 그런 이사님들, 또 경영평가위원님들의 의견이 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총평 등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보면 성과는 분명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난관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 OTT, 저희 젊은 애들 비롯해서, 통계에 의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50대 이상도 이러한 추세를 거를 수 없다는 그런 내용, 이런 것은 굉장히 긴장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 작년에 흑자를 봤지만 이런 흑자가 여러 가지 또 가변적인 요인도 있었음을 서로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거기도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방송 기본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육격차, 이것 엄연한 현실이고 다들 우려만 하고 있는데, 우리 EBS에서 좀 더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저희가 큰 문제로 제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읽기보다는 총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말씀드리고, 평가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평을 쓰거나 전체 조율하는 데 우리 김양은 이사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양은 이사님 경영평가위원으로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경평위원님들 말씀을 차례로 듣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양은 이사님, 먼저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죠.

순서대로 경평위원님들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 經營評價委員 김양은(理事)

안녕하세요. 김양은입니다.

경영평가 과정에 많은 분들을 뵈었고, 또 2020년 COVID-19 때문에 다들 어려운 과정에서도 제 자리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하시고, 또 무엇보다 EBS가 가지고 있는 공적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영평가하면서 방금 단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고민이 되는 게, EBS가 작년에 이끌어낸 성과를 어떻게 앞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어야 된다 라는 게 나오고, 고민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미래 EBS의 어떤 비전과 맞물려서 각각 방송파트, 교육파트, 기술파트, 경영까지 이어져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 재정의 확보와 함께, 또 이를 EBS의 미래의 비전과 함께 엮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게 2020년 저희 경평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들의 대부분들은 ‘중장기적 계획의 비전이 어떻게 수립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인력 구조는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다양한 기술파트, ‘에듀테크를 포함한 교

육에 대한 미래상들은 또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또 방송부분에서도 각각의 분야별로 말씀들을 상세하게 해 주시겠지만 방송의 기존의 좋은 콘텐츠들, 그리고 앞으로 개발할 콘텐츠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자들이 잘 보고 이용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인 것들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면 종합적으로 저희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경평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EBS가 앞으로 미래 방송환경의 변화와 교육환경의 변화를 리드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영파트부터 시작해서 각 분야별 경평 내용 전달하겠습니다.

#### ○ 經營評價委員 심준식

안녕하십니까. 경영부문 평가를 맡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심준식입니다.

2년째 평가위원을 맡겨주셔서 참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더 세세히 우리 경영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고서 38쪽부터 있는 경영부문 총평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사항, 또 평가에서 시사점 위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20년도 우리 공사는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을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재정위기 극복, 고품격 청정 콘텐츠 강화, 조직제도 문화 혁신 이 3가지를 경영목표로 삼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재정위기가 만성화되고 있고 그런 어떤 공사의 한계상황과 함께 미디어 간 경쟁 심화라든가 급격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든가 이런 공사의 도전적인 경영환경 아래서 목표의 설정 이런 부분은 적절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2020년도 우리 사회를 개념 짓고 있는 COVID-19라고 하는, 또 그에 따른 우리 정책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공교육 위기상황, 이런 상황에서 공사가 굉장히 눈에 띄는 변화가 포착이 됐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 3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영상 가장 큰 변화로 의사결정과 추진에 있어서 속도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의 획득과 함께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고양됐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수신료 배분의 70원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공사의 재정상황에서 공사 구성원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자부심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COVID-19 상황에서 공교육의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익을 담당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당기순손익 여건이 흑자로 전환됐다는 점입니다.

이 3가지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각각의 지점들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는가?’ 관찰을 했습니다.

한편, 아시다시피 경영평가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평가한다기보다, 그것을 포함해서 ‘어떤 의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성과를 창출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는 것이 경영평가의 주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년도 기억하시겠지만 전년도 경영평가단에서 주요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던 바는,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환을 요구했던 것이 전년도 경영평가단의 결과였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얼마나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본 것이 올해 경영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주요한 지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세한 사항을 살피기 이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히 경영부문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 경영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또 ‘할 수 있는 일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충분히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 다만, 공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을 다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COVID-19라는 상황에서, 어떤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얻어진 성과하고 또 우리의 자부심이 향후 미래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영평가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이라고 보여질 때, 저는 경영부문과 관련해서 3가지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권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사의 설립목적과 사회적 책무를 고려한 Brand Identity, 또 우리 인권, 윤리, 공정, 친환경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포함한 ESG 기반의 공사의 가치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Brand Identity라는 것은 ‘EBS를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EBS답다 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

라고 보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것을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공사의 설립목적은 어떻게 재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줍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보편적 인류 공동체로서의 책무로 부여되는 인권, 윤리, 공정, 친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반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Brand Identity나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반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측면은 최근에 우리가 대두되고 있는 ESG와 맥락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립목적에 대한 재해석, 우리 가치체계에 대한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런 가치체계와 미래상을 재정립했을 때 또 한편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떤 과제와 어떤 목표와 어떤 자원의 배분을 가지고 이것을 이행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지난 2년 동안 저는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는 경영계획이라고 하는 설립체계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행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송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가고 있는데, 방송기본계획이라는 것의 전제는 우리 중장기적인 경영전략의 방향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계속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즉, 당해연도에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과제의 설정과 그것을 하는 어떤 조건의 마련, 이행, 노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면 그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는 경영전략,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프로세스 개선에 따라서 경영전략이라는 게 수립이 되면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인력 또는 재정에 대한 문제는 ‘몇 년도 이후에 몇 사람이 퇴직하니까 여력이 남기 때문에 그 몇 사람을 뽑아야 한다.’ 즉 인력의 수급에 머무르고 있고, 재정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돈을 벌었으니까 빚을 갚자.’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차원에서의 계획, 그게 단순하다 라고 해서 폄하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중 장기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단기적인 의사결정에 그치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관련된 구체적인 과제와 목표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성립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한 성과관리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 구성원들과 다들 느끼셨겠지만 우리 현업이라고 하는 상황이 환경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치열해지고 굉장히 바빠집니다. 즉,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현업부서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사의 미래 방향성이라든가 또 분야별 트렌드를 지속, 탐색해서 공사의 대응역량을 지속 강화한다라는 차원에서의 소위 본질적인 R&D 기능에 대한 부분은 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경영진의 구체적인 계획, 구체

적인 의도, 또 거기에 따른 성과가 적절히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권고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개선 권고사항은 보고서의 58쪽하고 59쪽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개선 권고사항의 구체  
적인 방향성, 절차에 대해서 언급을 해 났으니까 그 부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經營評價委員 박은희

안녕하십니까. 방송부문 평가를 받은 대진대학교의 박은희 교수입니다.  
사실 이런 자리라고 상상을 못 하고 와서 이렇게 많은 분이 한꺼번에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1월부터 5월까지 EBS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교육을 하는 사람  
으로서 감사드리기도 하고요.  
이 기회에 열심히 들여다보니까 뜻하지 않게 EBS에 대한 애정이 가득차서 저 나름 개인적으로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애정이 솟아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을 평가하는 동안 ‘현업에 계신 분들이 대단히  
활동적이고 열정적이고 열심히 움직이더라.’ 사실 다른 어떤 지상파 방송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조직의 생동감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또 그분들이 현장에서 경영평가에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마  
음이 오롯이 전해져서 일종에 감동도 받았고요, 그래서 애정이 더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 콘텐츠 부분은 사실 큰 이야기보다는 디테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서 부문 부문에 연필로 꺾꺾 눌러쓰듯이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오늘 오셨으니 현장에서 부문별로 읽어보시고 그 부분이 업무  
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도의 방송부문 평가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위기에 잘 대처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개학이나 온라인클래스라는 교육공백 해소를 EBS가 잘 해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에 잘 대처했다는 것은 EBS가 갖고 있는 방송제작과 관련된 잠  
재적인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EBS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재난이나 위기의 순간에 공적 콘텐츠의 가치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지 하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게 해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방송부문과 관련한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권고사항을 나름대로 정리했지만 이중에 단 하나, EBS에 거는 방송 콘텐츠와 관  
련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대가 뭘까라는 부분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볼 때  
가 됐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다른 교육현장이라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EBS가 무엇보다 2020년의 경험을 살려서 ‘팬

데미 이후의 교육을 선도해 주길 바란다. 교육이나 지식 콘텐츠의 진정한 허브 플랫폼이 되어 주길 바란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제언을 하고요.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과부하 상태인데, 이 과부하 상태에서 ‘공적인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데 공적인 콘텐츠가 수용자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게 전달되느냐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았던 만큼 그 부분을 잘 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권고사항은, 무엇보다 아쉽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가능성을 기대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콘텐츠 아카이브죠.

EBS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보석과 콘텐츠들을 조금 더 가치를 높이고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제대로 다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아카이브가 사실은 내년도에 EBS에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거는 가장 큰 기대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원하는 교육 콘텐츠를 EBS에 와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세 번째 권고사항은 EBS가 갖고 있는 교육뉴스의 가치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EBS가 교육뉴스를 보도하고 환경감시하는 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축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 권고사항은 평생교육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는 유아어린이, 성인으로 너무 지나치게 달려나가는 것을 잠시 스톱하고 전체 연령에 맞는, 고르게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콘텐츠 편성도 제안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것은 조직의 문제이니까, 업무방식과 조직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가 퍼스트가 되는 상황에서 업무를 재구조화하는 방식은 시급하게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유아 콘텐츠인데, 그냥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트렌드를 쫓아가는 콘텐츠에 급급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멈춰 서서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기능을 복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EBS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EBS가 중심이 돼서 우리 사회의 유아어린이 교육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확산할 것인지 중심세력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

이상 제가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 經營評價委員 김성천

안녕하세요. 한국교원대의 김성천입니다.

EBS에 대해서 같이 배울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제가 들여다봤을 때 첫 번째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참 유의미한 대처를 하였고, 또 성과지표도 일정하게 달성을 하였고 사교육비도 실제로 작년도로 봤을 때는 줄어들었던 이런 것도 EBS의 효과가 아니었는가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 낮은 수업을 하는 일부 교사들에게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EBS 프로그램 이상의 수업을 요구하면서 ‘차라리 EBS를 틀어달라.’라고 요구할 정도로 즉,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재까지로 가는 이러한 사례들까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작년도의 위기를 잘 넘어설 수 있었던 의미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몇 가지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교교육본부의 경우에는 EBS 온·클 대응과 수능이라든지 교과지식, 그리고 문제집, 그리고 일부 정책사업들을 감당해 주고 있는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문제풀이 수업보다는 원리 연계, 학습클럽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현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교육이라고 했을 때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리고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미래교육을 에듀테크로 만약 규정을 하게 되면 아마 에듀테크 쪽으로 정책적인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래교육에 대한 어떤 담론들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는 상당히 폭이 넓죠.

그러니까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함해서 시민교육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 ‘고등과 평생과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 ‘지역 소멸을 대비해서 마을과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넘나들며 배우기라고 하는 가치 속에서 교과와 주체와 온·오프라인으로 넘나드는 아마 이러한 어떤 유연한 학습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들이 또 하나의 고민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에듀테크라고 하는 것들은 한 영역일 텐데, 과연 미래교육이라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얼마나 EBS가 고민해 왔었고 이것들에 대응해 나가면서 움직여 나갔는가라고 하는 지점을 봤을 때 조금은 균형성에 있어서 혹은 방향성에 있어서 조금 새로운 점점들이 필요한 것들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R&D 영역이었는데요.

앞서서도 경영진단에 있어서도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도전적인 과제들을 우리가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실제 학력이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현장 선생님이 ‘EBS 프로그램을 보세요.’라고 권장한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사교육 쪽을 더 학부모들도 찾아보고 이런 경향성들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리의 프로그램의 질이 사교육 콘텐츠를 능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인 건가?’

기초학력 부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EBS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이 될 수 있었는가?

개별 맞춤형 학습이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라고 하는 수준에 맞췄을 때 볼만한 콘텐츠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수포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수포자의 문제가 EBSmath라든지 EBS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해결되었다 라고 하는 실증적인 증거가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가르침으로부터 혹은 배움으로부터 도주하는 이러한 아이들이 EBS의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일정하게 학습에 대한 동기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실증적인 증거가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 보면 사실은 현재의 프로그램보다는 보다 질적인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미 소진되어져 있는, 혹은 번아웃 되어져 있는 이런 제작진들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한다면 는 것들은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좀 더 도전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R&D 기능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예산을 구축할 수 있겠는가, 적용해 볼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투입과 과정과 결과 지표로 놓고 봤을 때, 특히 결과지표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도라든지 시청자의 조회수, 시청률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비교적 성과지표가 좋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콘텐츠가 누가 얼마나 봤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콘텐츠가 어떤 효과로 나타났는가의 문제로 가게 되면 상당히 결과지표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결과를 어느 수준에서 어떤 정도로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해 봐야 되겠다. 그것이 양적인 문제에서 질적인 문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해 봅니다.

또 하나는 거버넌스의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일정하게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 이런 정책 관계자들, 기관들과 함께 많은 프로 콘텐츠에 대해서 사전에 공유하고 같이 만들어가고 의견을 반영하는 이러한 과정이 의미 있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 단위의 거버넌스를 넘어서서 주최 단위 내지는 지역 단위의 어떤 거버넌스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러한 주체들의 고민들을 반영해 주고 그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구조들을 어떻게 가볼 수 있겠는가?

이게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더 천착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지점이었습니다.

특히나 ‘돼지엄마’라고 하는 빅마우스들과 같은 엄마들이 있을 텐데, 이런 엄마들에게도 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어떤 정보의 확산 전략들은 어떻게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도 전략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학습 조직화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러한 수많은 과제들이 필요가 있었을 때는 결국 우리 EBS 직원 안에서의 학습과 공부와 연구라는 것들이 일상 안에서 보장되어야 될 텐데,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과도하게 처내기도 버거운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리듬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보장될 수 있겠는가?’ 그런 지점에서 이 학습 조직화라고 하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리듬과 공간과 여유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가 고민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포스트 수능 체제에 대한 어떤 대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능 연계율은 가면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역소멸을 또 대비해 봤을 때 과거보다 대학을 가는 것들은 훨씬 더 쉬워지는 조건으로 갈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교학점제가 들어왔을 때는 소위 모집 단위별 특성화 전형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꼭 국·영·수·사·과를 중심으로 하지 않아도 본인이 일정한 진로와 연결되어 있는 교과목을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이러한 루트들이 보다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수능이 아닌 그다음 단계의 어떤 체제가 한 번 더 바뀌어 나올 것입니다. 2025~2028년도의 변화를 감안했을 때 포스트 수능 체제 이후를 고민할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일방향성 체제에서 양방향의 체제 즉, 피드백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강해 줄 것인가라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진단을 하고 나서 수준에 맞춰서 경로형 학습을 하고, 학생들이 일정하게 따라오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 루트의 다변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할 텐데, 지금까지 콘텐츠들은 많이 만들어냈지만 이러한 콘텐츠들을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전략적인 고민들은 약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멘토링이라든지 농·어촌에 있는 열악한 학교가 EBS 콘텐츠를 가지고 일정하게 교육력을 끌어 올렸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실험단위들을 구현해 나가고 이것을 입증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들이 좀 더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 좀 더 도전적 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經營評價委員 윤용태

기술부문 평가를 맡은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의 윤용태입니다.

저는 1차적으로 늘 제가 잘 알고 있는 지루한 기술기업들을 평가하다가 EBS 같은 다이나믹한 기업을 평가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 4개월, 5개월 동안 많은 고민을 같이 공유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세 분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2020년은 늘 우리가 안고 있는 기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었던 해로서 쉽지 않은 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기술부문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한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겸손함으로 시작해서 슬기로운으로 끝난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엔지니어다 보니까 Onstage보다 Backstage가 훨씬 더 쉬운 사람인데요. 기술 부문이 갑자기 Onstage에 올라온 그런 상황이 아닌가도 생각하고요, 참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도 많고 생각해 볼 여지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2020년 원래 세웠던 목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기술부문에 있어서는 쉽게 말해서 ‘참 잘했어요.’를 받은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융합 미디어 서비스 활성화라는 기치 하에서 UHD 시스템 전환 등을 포함해서 ERP 안정화라든지 IT 서비스 품질개선,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구축, 교육 워크플로우 개선 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 잘했어요.’를 받을 만큼의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제언을 했었는데요.

일단 우리는 EBS라는 기업 자체가 미디어 콘텐츠 기업이며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지닌 기업이며 방송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기업이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한 4가지 정도 있지 않나 해서 제언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기술부문 쪽을 보게 되면 IT는 이 3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서포팅 역할을 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EBS는 기존에 생각하지 않으셨던 사이버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의 EBS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미디어 플랫폼 비즈니스 혁신 핵심 R&D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IT뿐만 아니라 AI나 빅데이터로 대두되는 4차 산업혁명의 큰 기술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자산이 단순한 유형의 자산에서 끝나지 않고 데이터 같은 무형의 자산들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일례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R&D 투자를 약 20%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넷플릭스 같은 기업도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업이나 교육 서비스업을 보게 되면 3.7%에서 1.5%의 R&D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R&D가 인재 수급인 이러한 상황에서는 구글이 40%의 직원이 연구개발직을 하고 있고, 삼성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20%에서 25%까지 연구개발직을 늘렸다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EBS도 이와 같은 상황에 S급 인재수급에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대응을 위한 콘텐츠 제작 교육방송 중심의 전략에서 플랫폼 운영을 위한 기술 활용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셔서 기업을 운영하셔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콘텐츠 생산 및 소비 환경을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고요, 기존의 소수의 제작과 단방향성의 어떤 유통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환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번째 제안 말씀은, EBS의 소비자로 분류되는 분들을 참여자로서 다시 분류를 하시고 활동을 촉진시키며 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Digital Rights Management’라고 해서 디지털 권한에 대한 또는 권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EBS는 이제 물리적 공간에서의 기업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기업으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은 물리적 공간보다 훨씬 더 적대적입니다.

앞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사회 시작하시면서 5월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이버 공간 내지는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적대적인 상황에서의 독점 및 지배 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나눔과 존중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EBS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사이버 공간에서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이에 필요한 S급인 재들을 어떻게 육성 및 받아들이 수 있는지 고민이 함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理事 정동섭

경영평가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자리가 굉장히 숙연해져버렸는데, 저희의 의도는 이런 숙연한 자리보다는, 보시고 이게 어떻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진단했는지 여러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평가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또 반복해서 요약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는 과정에 ‘EBS 구성원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면서 EBS에 대한 애정이 많

이 더 높아졌다.’ 그 애정은 뭐냐 하면, 현재 수고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 교육방송이라는, ‘교육’자를 빼면 그냥 방송이지만 ‘교육을 크게 강조하는 교육방송으로서의 그 역할과 미래 이런 것을 더 보게 됐다.’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EBS가 잘 대처를 했다. 온라인클래스를 비롯해서 잘 대처하는 바람에 국민의 기대 이런 것은 너무나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또 계속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 구성원의 고민이자 또 저희는 9월인가에 끝나지만 또 이사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이것을 지속케 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평가서를 썼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만 진짜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변하고 따라가기에도 급급하고, 우리 평가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현업 하기도 바쁜데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 또 선도하는 것 이런 것까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은 우리 경영진,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다’고 오늘 안 하면 내일은 어제 것까지 해야 되고 그런 과제가 계속 쌓이는 거니까 어떻게 하든 훌훌 털 수 있려고 하면 고민을 빨리, 내일 할 고민은 오늘 하고 오늘 또 풀어야 될 것은 오늘 아침에 풀고 이런 자세로 행간의 의미, 총평에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지만 조금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 구성원들의 열정, 그리고 무언가 하고 싶어 하는 의욕,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또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최고로, 저희 같이 있을 때도 얘기하고 그 평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한 인력과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이 방송을 더 멋진 방송, 아까 국내 상도 받고 여러 차례 하는 이런 것은 외부적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 인정도 받고 너무나 출중한 능력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경영평가서의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업무를 하시는 데 같이 협의를 하시면서 반영을 하면서 더 멋진 EBS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경영평가 단장으로서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拍手)

#### ○議長 유시춘

혹시 우리 이사님들께서 그동안에 많은 논의도 했습니다만 오늘 네 분 경영평가위원님들과 두 분 이사님들로부터 일일이 다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질의사항이나 제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강호 이사님.

○ 理事 박강호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자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2020년 경영평가의 요체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단기 중심에서 중장기 중심의 경영전략, 구체적인 확보와 실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고서 (p)41, (p)42에 보면 2항, 3항 경영부문에 쪽 나오고 2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단기 중심의 경영 운영체제’ 쪽 나와서 ‘경영진의 구체적인 계획의 확보와 실천’ 이렇게 돼 있고, (p)42의 3항에서도 마지막 줄에 보면 ‘구체적인 계획의 확보와 실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계시는 부서장님들이나 사장님, 부사장님은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영부문뿐만이 아니고 아까 기술부문도 그렇고 교육부문도 그렇고 계속 R&D도 얘기하고 ‘미래교육의 내용이 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다 이게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고 중장기적인 과제나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얘기를 하는 저도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 EBS가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사장님, 부사장님 임기가 3년 정해져 있고, 또 부서장님들도 직접적인 경영을 담당하고 있지만 임기가 개인 기업이나 민간 기업처럼 그렇게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이나 전략을 누가 담당을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이 부분은 정말로 부서장님들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지금 당장 우리 공기업 중에서 EBS와 유사한 데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도 좋습니다. 그런 사례도 연구도 해 보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같이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점에서 사소한 건데, 총평 부분에서 단장님, 죄송하지만 (p)33,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총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방통위나 국회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데 2번 ‘중장기적 비전 수립을 통한 인력의 운영과 발전계획’에서 이 조항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도 그렇고 각 부문별로 평가한 중장기 계획의 실천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인력운영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 있던 말이죠.

이 부분은 너무 협소하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넣었으면 좋겠다. 보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또 말씀, 예, 이영한 이사님.

○ 理事 이영한

2020년 경영평가보고서는 아주 잘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평가위원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다 하였고, 또 최선을 다 하신 것 같고, 평가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노고가 그대로 이 보고서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총평에 나온 내용의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 경영평가보고서가 또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이사회의 경영평가가 이번으로 마지막인데, 우리 이사회의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감하고요.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께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콘텐츠 관리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투자가 중요한데, 투자 중에서 교육투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ESG 경영 이 3가지거든요.

먼저 콘텐츠 관리에 대해서 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전부터 매년 ‘EBS가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EBS의 역사를 정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올해 역사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3개년 정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0년도에 ‘EBS 사사’가 나왔더라고요. 보통 사사는 5년 아니면 10년마다 그것을 계속 발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사도 예를 들어서 10년 단위로 발간한다든지 그런 큰 틀이 생기고, 또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런 콘텐츠들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를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아카이브 만드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테니까 정부하고 협조해서 그런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투자입니다.

투자를 신설투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비투자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교육투자거든요.

그래서 EBS 와서 느낀 것이 ‘교육투자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를 많이 느꼈어요. 교육투자. 교육은 여러 가지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발전하려면 해외의 여러 유명기관들, BBC라든지 이런 여러 기관에

우리 직원분들을 6개월 아니면 한 1년 정도, 10년에 한 번 정도 파견한다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의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ESG 교육인데요.

ESG는 지금 어쨌든 이게 민간 대형기업들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다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ESG 경영은 보편적인 앞으로 미래 경영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올해가 'ESG 경영 원년으로 삼겠다.' 발표를 하셨거든요.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ESG 경영에 보면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이사회 안에 ESG 경영위원회가 있어요. 그 정도로 ESG가 중요한데, 그래서 EBS의 프로그램도 ESG 경영에 비중이 있던 말이에요. 환경을 중시하고, 사회적인 문제, 그다음에 거버넌스도 있는데, 여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경영 시스템도 ESG 경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ESG 지표나 이런 것들이 아주 선진화돼 있거든요.

선진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영성과도 객관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ESG 경영을 도입하면 우리가 한 차원 더 높은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사회에서도 경영평가를 할 때는 ESG 지표 같은 것도 경영평가 지표에 같이 반영해서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관리운영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 ○議長 유시춘

저도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우선 김성천 교수님, 윤용태 교수님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은데요.

저는 너무 절박하고 또 아주 구체적인 실현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질문인데요.

EBS가 그동안에는 움직일 수 없는 보완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팬데믹이 닥쳤을 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의 대체재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만약에 EBS가 없었으면 우리 교육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의 수행기능에 비해서는 교육재정 투자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두 분께서 공히 도전적 과제 설정을 위해서 R&D 기능을 주문하셨습니다.

몹시 저는 절실하고 급박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경우에 적게는 10%에서 20%까지 R&D 기능에 재정을 투자하고 있는 데 반해서, 공영방송에서는 1.5~3.7%, 빈약하기 짝이 없는 재정인데요.

만약에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가 실현이 된다면 EBS가 어찌면 현재보다는 훨씬 더 막중한 대체재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여쭙는 것은, 혹시 EBS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기업 내지는 공기업의 어떤 모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이 오늘날 저렇게 우리가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던 소니를 제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이 R&D 기능에다가 직접 투자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EBS는 지금 2가지의 도전에 저는 직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완재에서 짧았지만 대체재의 기능을 경험했고요, 그다음에 또 소비자들, 시청자들에, 주로 청소년과 학부모들입니다만 요구수준이 이번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굉장히 높아졌다고, 신뢰도 높아졌지만 요구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제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나옵니다만 개별 맞춤형 학습이라든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시민교육의 제고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R&D에는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 제약 요건이 있죠.

그래서 만약 이것이 정말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 된다면 우리가 이 재정투자를 합리적 근거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간에 그쪽의 미전실이 수행하고 있는 이 기능을, R&D 기능을 우리가 확충할 수 있는데 참고 내지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윤용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듣고 싶습니다.

○ 經營評價委員 윤용태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 經營評價委員 김성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교학점제의 가장 우려하는 지점들은 사실 지역 간 격차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마 오히려 양극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런 것을 메워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데가 어디냐 라고 봤을 때는 교육청 아니면 지자체 쪽일 텐데, 그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편차가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메워줄 수 있는 단위가 어디인가 라는 것들이 늘 고민인 것 같고, 거기에 EBS가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한 역할과 기능이 양방향 기능만 좀 더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기업 쪽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최근 들어서 예를 들면 EBS와 비슷한 조직이라는 데가 교육청 같은 데도 보면, 과거에는 교육청이라는 데가 R&D 기능이라는 것들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정책연구소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직원들 중에서도 박사학위를 갖고 있거

나 이런 연구력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더 차출해서 정책연구원 같은 것, 연구소 같은 것을 꾸려서, 대신 선생님들 갖고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외부의 자원들을 결합해서 소위 플랫폼이라고 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되 조직은 최소화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용역 발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정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현장에 있는 분들과 함께 연구개발 해 나가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가 재단법인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부서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는데 아예 독립기구처럼 만들고 대신 투자를 좀 더 출자를 해 주는 거죠. 출자를 해서 이 기관 안에서 좀 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육청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도 보면 사실 관료조직이기도 하고 연구가 별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연구력 기능들을 상당히 강화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인 건데, 우리 직원들 안에서 갖고 있는 연구 역량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잘 조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델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 ○ 經營評價委員 윤용태

이사장님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 주서 가지고요.

말씀하신 보완재에서 대체재로 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했다 그러시는데, 사실은 보완재에서 대체재로 가면 단기적으로 된 게 아니라 지속하게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뒤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박강호 이사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중장기 전략을 어떻게 누가 세울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기업에 경영진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따라서 중장기 전략들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둘 다 냉장고를 만듭시다만 삼성전자나 LG전자의 DNA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DNA의 다름은 경영진이 무슨 목표를 어떻게 정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구성원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성원을 어떻게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먼저 다른 회사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덴마크에 있는 에너지 회사가 있습니다.

‘동에너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사명이 바뀌어서 ‘Orsted’라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에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서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으로 확 바꿨습니다.

중간에 DNA 큰 변혁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감히 예를 드린다면 그 동에너지의 사례를 보시면서 우리 EBS를 보시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EBS가 지금 보완제에서 대체제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었던 어떤 이런 물리적인 세상에서 사이버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디뎠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 사이버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적대적인 세상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누군가가 독점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통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인데요. 우리가 EBS라는, 아까 애정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실제로 굉장히 EBS하고 사랑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빠져있습니다.

이런 사이버 세상에서 처음으로 나눔과 존중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고교학점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정부를 상대로 설득하고 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서 저희가 움직이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EBS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설득논리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議長 유시춘

고맙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 [ 意見 提示하는 理事 없음 ]

다시 한 번 거듭 감사드립니다.

각계의 전문가 1인자이신 분들이 오셔서 EBS를 정말 사랑으로 들여다 봐주시고, 또 평가를 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요, 감사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 ○監事 김재영

저도 경영평가단 위원으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 번 EBS가 2020년도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초·중·고 12개 학년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IPTV,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학교교육을

충실하게 지원했습니다. 그럼으로써 EBS가 공영방송, 교육방송으로서의 어떤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중요성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위원님들이나 이사님들께서 평가를 해 주셨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EBS가 매출규모 3천억 이상으로 성장하고 당기순이익 흑자된 것도 큰 성과이다. 이것은 EBS 전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을 잘 극복해 내고 얻어낸 결실이기 때문에 작년도 2020년도 경영성과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코로나 이후에도 EBS가 교육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좀 보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미 경영평가보고서에서도 개선사항으로 언급된 사항입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IT 분야 공무원으로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눈에 들어옵니다.

EBS는 지상파 방송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PD나 기자나 방송 콘텐츠 기획·제작 측면에서는 어느 못지않게 탁월한 역량과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전문화된 인력과 조직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AI시대, 스마트시대, 에듀테크 시대 이 측면에서 EBS는 IT 분야의 어떤 조직이나 전문인력이나 인프라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과감하게 보강하고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은 기간 동안 EBS에 근무하면서 ERP 구축 과정, 그다음에 온라인클래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미디어 환경은 OTT라든지 메타버斯拉든지 AI 등 IT 기술이 접목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EBS가 방송분야, 교육분야의 전문인력 외에 IT분야의 조직, 그다음에 전문인력, 인프라를 보강하는 데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원과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평가단과 얘기할 때도 보면 많이 공감하는 분야가 있었고, 지금 경영평가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또 총괄평가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BS의 여기 간부님들께서는 EBS 전사 차원에서 EBS IT 역량과 현 실태를 한번 진단해 보고 향후에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비전과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과제들을 만들어서 차근 차근 실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BS의 현재의 역량과 IT 역량이 보강이 되면 향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EBS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대동소이하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방송문안 심의인데요.

이 방송문안은 저희가 EBS 뉴스시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나가고 있습니다.

문안을 저희가 미리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 국장께서 방송문안을 다 읽을 필요까지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여기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 理事 장옥님

한 번씩 다 검토한 것 같아요.

○ 議長 유시춘

지난번에 다 검토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 理事 선동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理事會 事務局長 김혜영

다 보셨으니까요. 예.

○ 議長 유시춘

지금 나눠드린, 방송 발표문 다 나눠드리셨죠?

[ “예.” 하는 理事들 있음 ]

가지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미리 다 검토를 하고 수정 보완도 했습니다.

이사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평가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다 저희들이 소통을 했고요, 굳이 다 전문을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실까요?

[ “예.” 하는 理事들 있음 ]

그러면 읽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개월 동안 특히 애정으로, 노력을 넘어서 애정으로 EBS의 내부를 들여다 봐주신 평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이 그냥 의전적인, 일회적인 일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께서 평가해 주신 내용을 저희 EBS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양분과 비타민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사진에서도 경영평가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이런 여러 개선책과 제언을 귀하게 받아들여서

내년 '21년도에는 더욱 더 한 움큼 더 성장한 EBS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회 의결안건 제486호 「2020사업연도 경영평가 결과」 는 이사회 의건을  
수렴하여 일부 보완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 議事棒 三打 ))

○ 議長 유시춘

그리고 또 이사장으로서 참 송구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러기는 했지만 올해 이사진과  
경영평가위원님들 간에 식사자리도 한번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7월 되면 이 거리두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연락을 드려서 좋은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앉아 계셨는데요, 일단 잠깐 휴회를 하고 이사진들과 경영평가위원님들 인사를 나누  
고 다음 보고 안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停會(17:22)》

《續開(17:30)》

## 〈 報告案件 〉

### 【 第2021-8號 : 5月 主要 業務 推進 實績 및 計劃 】

#### ○ 議長 유시춘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안건 상정 전예요, 저희들이 이사분들도 또 경영평가위원들도 감사님도 다 총괄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사장님 의견, 말씀하실 것 있으실 것 같아요.

#### ○ 社長 김명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또 평가위원들이 아주 소중한 경영평가 보고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해 EBS가 그 어떤 위기대응 능력, 여기에 또 혁신의 마인드까지 겹쳐져서 창사 이래 최대 흑자를 낸 것을 성과로 인정해 주셨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4개의 대통령상을 받은 것으로도 기쁨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도전 과제를 주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제가 버릴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정말 주옥같은 얘기이고 저희가 꼭 실천해야 될 것이고 가야 될 방향이라는 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은 저희가 실천을 해 나갈 텐데요.

EBS는 현재도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를 정말 힘겹게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적자를 봐 왔었는데요, 교수 출신 사장이 오죽하면 R&D 기능을 축소를 했겠습니까.

누적되는 적자에 회사의 자본금이 언제 다 없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해서 왔습니다. 저희가 이 주어진 과제들을 다 하려면 저는 딱 투입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돈과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는 이 부가적인 일들을 지금에 하는 상황에서 플러스해서 당장 해 내기는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신료 재정의 확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의 가능성 중에 하나일 것이 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아침에 사실 제가 교육부의 '2022 고교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왔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격차 해소를 위해서 특히 농·산·어촌, 그리고 소수의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선택과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EBS가 플랫폼 인프라를 갖고 있고 콘텐츠를 갖고 있고 또 많은 선생님들을 확보하고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에 또 새로운 역할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

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경영을 합리화하고 효율화시켜서 말씀해 주신 과제들 중에 저희가 단기적으로 바로 실천이 가능한 부분은 실천해 나가고, 또 긴 호흡으로 저희가 인력과 재원이 투입되는 부분은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유시춘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좋은 제언도 받았지만, 인력과 재원이 없이는 성취하기가 힘든 제언이라는 것 저도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미래 전략을 확고히 하고 R&D 기능을 통해서 확실한 합리적 근거로 제시할 때 이 빈약성을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8호 「2021년 5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상정합니다.

(( 議事棒 三打 ))

정책기획센터장, 상정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2021년 5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p)32 1번 사항입니다.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제54회 휴스턴 국제TV영화 페스티벌에 EBS 프로그램이 총 7개의 수상을 기록했습니다.

필름 부분에 <인류세>가 대상을 받았고요, TV 부문에 <다큐프라임-요리의 과학>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휴스턴 페스티벌 수상이 더욱 값진 것은, 국내에서 타 지상파 방송들 중에 이번에 수상을 같이 동시에 한 곳은 없고요, JTBC, CBS, TV조선이 각각 1개의 프로그램을 수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7개의 수상을 함으로써 EBS 콘텐츠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3번 사항입니다.

저희가 가정의 달 특집 또는 내부의 어떤 특집 시리즈를 기획해서 시청자들에게 콘텐츠의 소구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사항입니다.

제18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가 5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학교교육본부, 스마트사업센터, 정책기획센터가 참여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교육 콘텐츠를 실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 수요자분들께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학교교육본부는 AI팩톡, 또 EBS English 콘텐츠 소개, 또 VR 콘텐츠 등을 소개했고요, 스마트사업은 저희가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독서비스에 대한 홍보들을 진행했습니다.

5번 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시청자 참여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작된 EBS 스토리 기자단이 올해 16기 선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유아어린이, 시니어, 라디오, 신규 IP 서포터즈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더욱 효과를 높였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프로젝트의 서포터즈와 또 원격교육과 관련된 교사 부문 서포터즈를 신설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콘텐츠들의 시청자 접점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사항입니다.

2021년 외주제작 상생협의회가 5월 13일 목요일 개최됐습니다.

EBS는 협력제작사와 상생을 위해 크게 2개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주 공모를 통해서 확정돼서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외주제작사들을 연간 2회 같이 모여서 그러한 상생의 방안들을 고민하는 외주제작 상생협의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협력제작 대표단체 상생협의회라고 해서 외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현황이나 제도적인 개선점들에 대해 모색하는 이 2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일전에 4월 20일에 저희가 협력제작 대표단체들과 상생협력공동문을 선언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사회에는 직접 4월 20일에 있었던 협력제작 대표단체 상생협의회 공동선언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 총 6차에 걸쳐서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와 한국독립PD협회, EBS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상생방안을 공동으로 모색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가 2021년 4월 20일 그간의 성과들을 모여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외주기획안 자유공모 선정작의 경우에 케이블TV 및 IPTV에서 판매하는 개별 프로그램 수익을 50:50으로 협력제작사와 나누는 방안이 첫 번째 방안이고요.

두 번째 방안은, 협력제작사가 촬영 원본을 활용해 사전 신고만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마음껏 제작할 수 있도록 했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매출 기준으로 60:40, 그래서 60은 협력제작사가 가져갈 수 있게 했고, 이를 위해서 기존에 촬영했던 원본까지도 협력제작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개방했습니다.

또한 협력제작사 협찬 시 그 제작비 및 협력제작사 인센티브로 90%를 협력제작사가 가져갈 수 있

도록 하고, 간접비는 10%만, 최소한의 경비만 간접비로 책정을 하는 그런 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협력제작사의 제작 콘텐츠로 발생한 수익을 공동으로 쉐어한 것은 대한민국 방송 사상 처음 이루어진 일이고요.

이렇게 저희 EBS가 협력제작사에게 상생의 motivation을 제공했더니 긍정의 선순환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나 하면, 공동선언문 네 번째 사항으로 저희가 수익을 쉐어하는 협력제작사의 경우에는 그 협력제작사가 고용하는 연출자, 작가들에게 그 공동으로 쉐어한 수익분의 일부를 다시 재분배를 하겠다라는 것을 협력제작사와 한국독립PD협회가 자발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 공동선언문에 같이 상생으로 넣자라는 의견을 자발적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EBS는 협력제작사에게 상생의 제안을 했고, 협력제작사는 다시 한국독립PD협회와 작가분들에게 다시 상생을 제시하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사항입니다.

2021년 신규직원 공개채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채용 인원은 총 00명으로 지금 공고 및 지원서접 수를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개채용에서는 기존에 자기소개서 위주의 1차 전형을 과감히 탈피해서 저희가 AI 면접이 있습니다. 지금 직무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시대에 맞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 하나하고요.

또한 독서능력 평가, 저희가 문해력 프로그램을 방송해서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 문해력을 체크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새롭게 신설해서 새로운 시대상에 맞는 인재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현 총 인원이 00명을 추가 선발할 경우에 총 631명이 임원 세 분을 제외하고 됩니다.

이 경우 저희 정원 T/O가 648명으로 여유인력이 00명으로 대폭 여유인력, 정원 대비 현원 인력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도 해서 추후 이사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사항입니다.

상반기 주요 언론학계 세미나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습니다.

수신료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 EBS의 현안과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방향성들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학회로 5월 14일 한국언론학회에서 ‘팬데믹 시대, 교육공영방송 공공성 가치 확대와 과제’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라대 김정화 교수님이 발제를 맡아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속

하고 있는 원격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크게 큰 의미와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 메시지를 주셨고요. 다만,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재원에 있어서는 이런 새로운 시대의 공적책무에 맞는 공적재원, 특히 수신료의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고요.

토론에 참석하셨던 모든 교수님들께서 새로운 공적책무에 맞는 수신료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들을 주셔서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release를 했습니다.

향후 학회는 5월 29일 토요일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조선대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6월 12일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6월 18일부터 19일은 한국방송학회가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EBS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성에 대한 고민, 또 한국방송학회에서는 미디어 플랫폼 진화를 통한 EBS의 가치 창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저희가 수행해야 될 공적책무 발굴과 이에 대한 재원구조 이런 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번 사항입니다.

EBS 세종특별자치시 업무협약식이 5월 7일 금요일에 세종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와 MOU를 체결하고 있는 언론사 현황을 보면 A사 같은 경우는 세종시와 2021년 2월 23일 MOU를 체결하면서 콘서트홀, IT 미디어기업, 쇼핑몰 등의 구체적인 방향성들을 제시했고, 이에 맞는 토지를 요구한 것으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B사의 경우에도 뉴스테인먼트를 제작하는 그런 거점센터로서 세종시센터를 고민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평수를 요구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C사 역시 3월 48주년 기념식 때 본사까지 세종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타 D사, E사, F사 이런 뉴스의 언론기관들이 세종시와 MOU를 체결해서 센터 설립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BS 역시 에듀테크 기반의 첨단교육 체험센터, 그리고 지방교사에 대한 미디어 기반의 원격교육연수센터, 또한 저희가 갖고 있는 EBS 교육뉴스의 거점센터 등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와 MOU를 맺고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사이에 저희가 일산으로 청사 이전을 하면서 상당히 재정적 압박을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종센터에 대한 규모, 목적, 그리고 또 향후 가능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MOU 이후에 즉시 부사장님 주재로 관련 부서장, 부장들 회의체가 구성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자력으로 센터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 여부들과 또한 저희의 경제적인 능력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센터를 건립해야 되는 경우에는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반이 되어야

저희가 적정 규모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와 저희가 방송법과 EBS 법상으로 가능한지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했고요.

일단은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는 파이낸셜 프로젝트처럼 적극적인 개발은 힘들고, 이것은 KBS도 동일합니다. 다만, 저희의 업무 목적과 연관성이 있는 임대들은 가능한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검토가 지금 진행 중에 있구요. 아울러서 유사 공사들의 임대 상황이나 법적 근거, 현황 등을 오늘 2차 회의에서 추가 과제로 선정해서 각 부서들이 이 부분을 파악할 예정이구요.

이러한 자료가 확보가 되면 곧 이어서 다시 회의를 열고 저희가 가능한 자체적인 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체크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저희가 새로운 공적 책무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부처에 제시를 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에 제시를 해서 공공적 기반의 센터 건립 역시도 Two-Track으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이사회 보고를 통해서 이사님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역 센터의 설치 및 폐지는 이사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님들의 고견을 항상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예.

○議長 유시춘

예, 이사분들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예.

○理事 선동규

제가 해도 되죠?

○議長 유시춘

예.

○理事 선동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휴스턴 필름페스티벌 올해 54회, 매년 하는 건가요?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理事 선동규

EBS가 수상을 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까?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아니고요, 예년에 한두 개 정도씩은 받았는데, 이렇게 대거 7개, 특히 대상을 동시 수상은 처음입니다.

○理事 선동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EBS 세종센터,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이 될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MOU 협약을, 업무 협약식을 했다 그러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세종에다가 EBS 센터를 만드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치 및 폐지를 승인받게 돼 있고요.

지금 사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상호 양해각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호 양해 정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세종시에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체크해야 될 법적, 재정적인 이런 검토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곽이 서면 이사회에 선 보고를 한 후에 그리고 세종시와 접촉을 할 예정입니다.

○理事 선동규

그러면 EBS가 집행부에서 기본 구상이 있으실 텐데,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기에 비춰볼 때 이게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게 대충 outline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 분권화의 핵심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언론사들이 사실 거점센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작게는 저희가 아주 사무실 단위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크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 자체를 신설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理事 선동규

그것은 알겠어요.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 운영규정인가 그런 데 보면 대규모, 대규모인지 중규모인지 좌우지간 새로운 투자를 하게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 理事 선동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사안인데, 그러면 사전에 이사회에 무슨 언질을 준다든가 사전에 승인을 받든가 그래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어느 날 갑자기 ‘업무 협약식을 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 규정을 누가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議長 유시춘

규정은 지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지금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맞습니다.

○ 議長 유시춘

그런데 이 집행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개요는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소 형태로 한다면 어떤 형태든 간에 시놉시스는 있을 텐데, 그게 어떤 규모에 어떤 성격인지 대충의 개략적인 계획은 있겠지요?

그것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김양은 이사님.

○ 理事 김양은

그것도 당연히 공유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선동규 이사님하고 지금 같은 의견인데요.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이 MOU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법적 구속력만큼의 약속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센터가 거점이 되든 뭐가 되든 이것은 굉장히 EBS에서는 큰 건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EBS가 이렇게 거점센터를 지역에다 둔다거나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MOU 자체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이든 뭐든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알겠습니다.

○ 理事 김양은

그리고 EBS가 거점센터를 둘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검토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회의 승인 의결사항 규정을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사무소 설치·폐지의 규정은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처 이사님들께 이 MOU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고 고견들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점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추후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 議長 유시춘

예, 장옥님 이사님 말씀하세요.

○ 理事 장옥님

저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을 여쭙보고 싶은데요.

세종시에 EBS의 어떤 그런 미디어센터 같은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세종시 부지 미디어센터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A사니 B사니 있는 건지, 아니면 미디어센터라는 부지가 있나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국회의사당 부지가 있고요. 그 옆쪽으로 미디어센터 부지를 확보를 해서, 지금 연이어서 언론사들이 앞 다퉈서 지금 세종시와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理事 장옥님

그러면 그럴 경우에 부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건가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지금 세종시에서 그 땅을 지금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향후에는 확보를 할 예정인데, 올 하반기에 국회법이 통과되면 국회 분원 설치 여부가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LH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종시에서도 이 미디어 부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각 개별 언론 사라든지 방송사에게 어느 정도의 계획으로 이것들을 진행할지는 나온 게 하나도 없고, 현재 상태에서는 세종시도 여러 언론사들에게 이런 제안들을 받고 MOU를 연이어서 체결하는 상황인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理事 장옥님

그럼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다른 것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3월 29일자로 봄개편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두 달 정도 돼 가는데, 이번 봄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이랄까 어떤 성과랄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후 1시에 생방송하는 것 있죠?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 理事 장옥님

<일단 해 봐요>인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없었던 정보 프로그램인데, 낮 시간에 생방으로 하는 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시청자 반응이라든가 광고가 잘 붙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양해해 주시면 콘텐츠기획센터장님이..

○ 理事 장옥님

예. 관련 부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어떻게, 방송본부장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 放送制作本部長 남선숙

방송제작본부장 남선숙입니다.

생방송 오후1시가 지금까지 데일리 없던 50플러스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설계돼서 지금까지 방송이 되고 있는데, 지금 최고 시청률은 0.79 정도가 나온 아이템들이 있고요. 그런데 아이템에 따라 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 매일의 아이템들이 건강 무슨 의학정보도 있지만, 요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그렇게 다양한 아이템과 실험들을 이제까지 해 오고 있고요.

5월까지 그러한 아이템들과 포매팅이나 이런 것들을 시험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6월부터는 요일별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작을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제작진과 회의를 했을 때 저희들이 이 시청률 자체는 상당히 60대 이후의 여성 시청자들에게 소구하는 아이템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시청률이 굉장히 많이 다르게 나오고요.

오후 1시에 저희들은 활력을 준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해 봐요.’ 이러면서 활기찬 분위기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제작진들이 판단하는 것은 ‘활기찬’이라기보다는 ‘딱 그 타겟 연령층에 소구하는 어떤 정보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월 중에 저희들이 포맷을, 포맷이나 아이템에 있어서 관계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상담의 포맷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는 실험을 하려고 하고, 또 <조손퀴즈> 같은 손주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포맷을 실험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생방송이라는 포맷에 EBS가 뭐랄까, 아주 유연한 방송사는 아니었어요. <생방송 보니하니> 초등 타겟으로는 생방송이 있었는데, 한동안 성인 타겟은 없다가 지금 1시에 제작진들이 이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편성 이후에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들 5월까지의 조금 정리를 하고 6월부터 정착된 모습으로 찾아 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理事 장옥님

광고도 많이 붙어요?

○ 방송제작본부장

지금까지 광고나 협찬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유의미하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지금 낮 프로그램대도 앞뒤로 광고들이 붙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유의미하게 많이 붙었다.’ 이런 소식은 못 듣고 있습니다.

○ 理事 장옥님

예, 알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문종대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理事 문종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센터 설립은 장기적 관점에서 아주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절차상을 떠나서.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한번 묻고 싶었어요.

우리가 외주제작 상생협의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칭찬 드리고 싶고요.

혹시 염려가 돼서, 이게 협찬사나 PPL, 왜냐하면 수익이 90%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협찬사 섭외나 혹시 PPL 광고, 또는 협찬사 중에서 사회적 평가가 문제가 있거나 교육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심지어 반사회적·반환경적 이런 기업들 혹시 포함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르는 작업들은 있습니까?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협력제작부와 콘텐츠기획센터 소속이라 콘텐츠기획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콘텐츠기획센터장 류재호입니다.

저희가 외주사든 내부든 협찬이 있을 때는 저희 편성이라든가 그쪽 협찬 유치한 제작사라든가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 편성에서 편성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까 우려하신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편성 단계에서 걸러져서 편성 자체를, 아무리 협찬금이 크다 해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理事 문종대

고맙습니다.

○ 理事 김진

관련된 질문이라 같이 말씀드리고 공식적으로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상생협력체 말씀하시면서 외주제작사와의 상생협력체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봄에 5월에만 해도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주방송 이재학 PD 근로자성 인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난달에 중노위에서도 MBC 방송작가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 그다음에 방송 프리랜서들 계속 퇴직금까지 주라는 명령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제작 자체를 외부에 맡기는 외주제작사 문제뿐만 아니라, 방송사가 보통 ‘비정규직의 백화점’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는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는 프리랜서 문제인데요.

EBS가 그 프리랜서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이재학 PD 사건이나 MBC 방송작가 사건처럼

유사하게 또는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현황과 이러한 법률 환경들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노동조합 안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오늘 지금 바로 말씀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료는 추가로 추후 이사회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통위에서 지금 지상파 재허가 조건으로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비정규직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제도 개선에 대해서 재허 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타 지상파 3사 같은 경우는 작가협회에서 요청을 해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에 준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송사 내부의 비정규직 문제를 일순간에 다 풀 수는 없어서 방통위에서 지금 예시로 제시를 한 것들이 일단 첫출발이 근로계약서라든지 그리고 근로의 예측 가능성 확보, 또 질적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시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이영한 이사님.

○ 理事 이영한

세종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대학에서 위탁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위탁교육이 뭔고 하니, 예를 들어서 서울대가 있다고 한다면 인천시가 그쪽 와서 교육해 달라 해서 위탁교육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장소 같은 것을 시에서 다 제공해 주고, 학교는 그야말로 강사들만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종센터를 하는데, 이게 공간까지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 理事 이영한

그게 과연 적정한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지금 다 디지털 시대로 가는데, 다 전국권으로 디지털 시대로 가는데 ‘구태여 이렇게 센터까지 마련해야 하나?’ 그런 퀘스천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종센터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면 또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경영전략 쪽으로 한번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저희가 갖고 있는 공적채무 플러스 저희의 재정 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리한 것은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효과가 중복이 된다거나 또 해 놓고 효과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아예 추진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꼼꼼히 살펴서 재정적 무리나 중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를 위한 MOU라고 해서 미처 이사님들께 사전 보고를 올리지 못해서 정말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미리 소통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말씀 진심으로 드립니다.

○ 議長 유시춘

예, 선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理事 선동규

그러니까요, 아까 이영한 이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한테, 이게 ‘전 국민의 미래교육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종센터를 세우겠다.’ EBS가 꼭 세종시로 내려가야, 거기다가 무슨 Branch 식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야 전 국민의 미래교육이 되는 건지에서부터, 아까 이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공간은 제공하고 EBS는 사람만 내려간다는지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사회에 새롭게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사회가 무슨 품을 잡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미리 이사회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다 듣고 수렴을 해서 해도 될 건지 말건지가 최종 결정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디 규정에 있을 겁니다.

이게 간단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 理事 선동규

그러면 이사회에 보고해야 돼요, 사전에.

그리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스타트를 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이걸, 물론 사장님이 최종 결정을 하셨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사회에 던지듯이 ‘세종시에다가 우리 센터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황당하다 이겁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죄송합니다.

○ 理事 이영한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요.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공기관 지방 이전에 역일 수가 있어요.

‘야, 너희 거기 세종 청사도 있는데 조금 더 넓혀서 내려가.’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게 아주 잘 하셔야 합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理事 박강호

저는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다른 의견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일산에 들어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20층에서 이렇게 쪽 내려다보면 ‘와~ 축구장 100개가 들어갈 공간이 저렇게 많은데 왜 ’17년도에 들어오면서 이 공간밖에 확보를 못 했냐, EBS가. 10년 앞을 못 내다보고 이렇게 신사옥을 건설하고 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외부 이사인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EBS에 있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벌써 업무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데 임대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저는 EBS 세종센터 이것을 추진할 때 가능한 선에서는 최대한 많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확보해 놓으면 활용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100% 장담하니까.

하여튼 다른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理事 문종대

저도 동의합니다.

○理事 선동규

그리고 경영상태도 조금 전에 우리가 경영평가를 했지만 작년 2020년에만 천우신조로 60몇 억인가 흑자가 발생을 했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돈이 뒷받침이 될 건지 말 건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따져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 이것 깜짝 놀랐어요.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理事 선동규

A사도 하고 B사도 하고 한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우리 EBS도 하자.’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렇게 결정을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집행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내린 결정이겠지만 좌우지간 아쉽습니다.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議長 유시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2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는, 김진 이사님께서 제기하신 방송사의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고용 형태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들이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노사 관계에도 파란을 일으켜서 기사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요 근래에 보니까. 그것 좀 유념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議長 유시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 이사님, 김양은 이사님, 이영한 이사님 모두 제기하신, 이 절차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미디어센터의 현황, 어떤 회사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과, 그다음에 EBS가 MOU를 체결하기까지의 진행 경과 이런 것들을 추후에 문서로 보고해 주시면 우리가 공유토록 하겠고요.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議長 유시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도 지금 이 세종특별자치시 업무협약식은 처음 듣습니다.

제가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만 1번부터 본다고 봤는데 마지막에 EBS-세종특별자치시 업무협약식 관계는 제가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휴스턴 국제영화페스티벌의 수상소감에 제가 너무 고무돼 가지고 끝까지 살펴보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추후에 사전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議長 유시춘

또 의견 있으신가요?

예, 김양은 이사님.

○理事 김양은

다른 게 아니고, 클라우드 전환 하고 계시고 지금 안정화된 것 같기는 하던데, 제가 보기에 지난주 까지 저도 들어가면 로그인이 풀리고 튕기고 계속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특히 학습 콘텐츠나 이런 쪽은 더 먼저 움직이기는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클라우드 전환 상황 잠깐만 어느 정도 됐고 안정화돼 있는지만, 지금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라도 어쨌든 간략하게라도, 제가 좀 궁금해서요.

○學校教育本部長 김광범

학교교육본부장, 김양은 이사님 말씀 주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작년 제작년에 이사회에서 보고를 드렸고 의결해 주시고 했던 클라우드 이전사업이 원래는 3월 말에 끝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온라인 클래스 안정화 기간이 필요해서 또 다시 여기에서 문제가 되면 안 되기에 저희가 전격적으로 임원진들의 결정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정기간 뒤로 미루어서 5월 1일자로 완전하게 이전을 끝냈습니다.

첨언 드리자면, 사실 대한민국 방송에서도 KBS 같은 경우도 클라이드로 일부를 이전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것을 빅뱅 형식이라 그러는데, 빅뱅 형식으로 이렇게 대규모의 8개 산하 모든 것을 전환시키는 게 저희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너무나 많은, 저희가 수십 년 쌓아온 데이터를 옮기다 보니까 세 차례에 나눠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한 80%, 90%는 이미 다 옮긴 상태에서 마지막 그 이후로 또

발생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그 데이터까지 완전히 넘기고 실제 상황에 돌입한 부분, 그리고 테스트까지 마친 게 5월 1일자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몇 개 데이터들이 빠진 부분이론다가 가져왔다고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이사를 했는데 저쪽 집에다 뭐를 놔두고 온 것처럼 몇 개, 한두 개가 빠진다고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온다고거나, 또 저희가 과외 클라우드가 아니라 클라우드 전단계에서 했던 영상 서비스가 있습니다. CDN이라고 해서 영상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이쪽과 저쪽이 연결되는, 연결시켜줘야 되는 고리들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빠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보완해야 되는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까지 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議長 유시춘

예. 또 말씀 있으십니까?

[ 意見 提示하는 理事 없음 ]

마쳐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理事들 있음 ]

그러면 이사회 보고안건 제2021-8호 「2021년 5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은 원안대로 접수합니다.

(( 議事棒 三打 ))

(閉會：18時 20分)

V. 閉 會

○ 議長 유시춘

이상으로 제309회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議事棒 三打 ))

[ 이사들 “수고하셨습니다.” ]

《散 會》